

한·중간 사드 갈등에 따른 영향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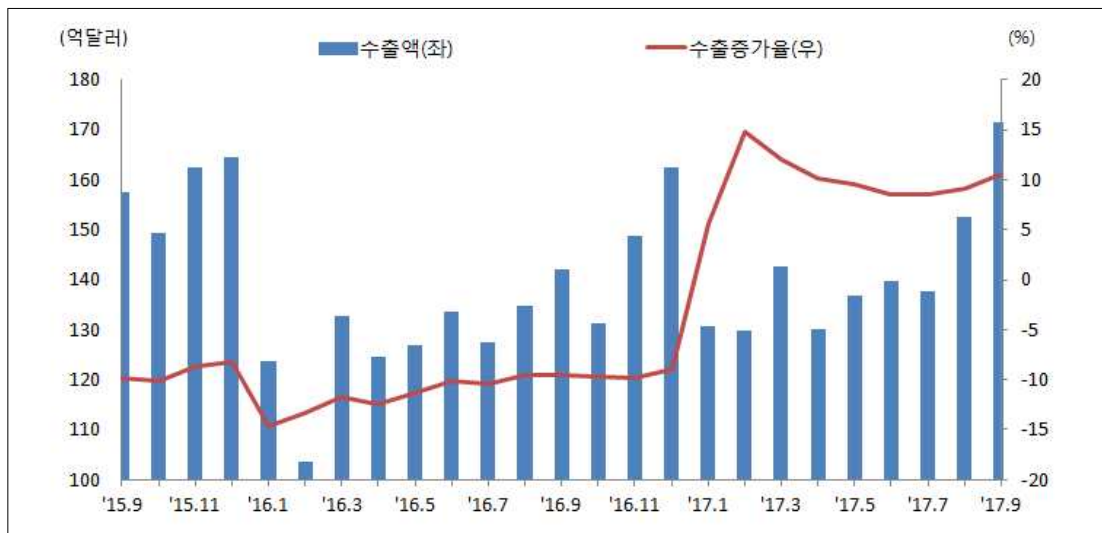
주 예 성(중국경제연구소, zhuyixing118@kdb.co.kr)

- ◆ 사드 갈등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면세점을 비롯한 한국의 관광 및 유통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고 문화콘텐츠 수출 등이 위축되었으나, 전반적인 對中 수출은 중간재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높은 증가세 시현
- ◆ 최근 양국 정부의 관계 개선 합의로 사드 갈등은 해소 국면에 진입하였으나, 향후 유사 사례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출 다변화와 더불어 중국 로컬 업체와의 협력 확대, 중국 기업과의 공동 해외진출 등 중국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성 강화 등의 방안 검토 필요

□ 한·중 사드 갈등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

- (수출) 사드 여파에도 불구하고, 한국의 올해 대중국 수출은 '16년 대비 높은 증가세 시현
 - 대중국 수출에서 75.7%를 차지하는 중간재의 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한데 기인
 - 대중국 중간재 수출증가율 : '15년 -7.2% → '16년 -8.6% → '17.1~5월 15.2%

한국의 대중국 수출추이



주 :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, 누적 기준

자료 : 중국세관총서, Wind

- 농산물, 식품, 자동차 및 부품, 화장품, 잡화 등의 수출은 사드 여파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, 기타 품목들의 수출 상황은 전년 동기대비 개선

품목별 대중국 수출 현황

(단위 : 억 달러, %)

수출품목	'16년		'17.1~8월	
	수출액	증감률	수출액	증감률
농산물	22	9.8	13	0.2
식품,음료,담배	7.8	20.4	4.2	-6.9
광물연료	61.9	-6.4	48.8	17.7
화학공업제품	163.5	3.2	125.4	19.1
↳ 화장품, 향료	12.3	53	9.5	32.4
플라스틱, 고무	110.7	-7.2	77.4	9.7
방직원료 및 제품	18.8	-12.9	12.1	-0.2
↳ 의류, 액세서리	1.4	-5.4	1	17.9
철강제품	45.1	-4.4	31.1	7.1
기계, 가전 및 부품	888.7	-10.2	630.7	13
자동차 및 부품	44.6	-11.4	17.8	-36
광학, 조명, 의료설비	173.5	-17.5	98.9	-10.6
잡화(침구, 완구 등)	4.7	-9.3	2.2	-23.9

주 :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
 자료 : 중국세관총서, Wind

- **(직접투자)** 수출 호조와는 달리 대중국 직접투자는 올해 들어 급감
 - '17.1~8월 한국의 대중국직접투자액은 19.8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43.4% 급감
- **(관광)** '17년 3~8월 중국인의 한국관광은 전년 동기대비 62.2% 감소하였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55.2억 달러로 추정
 - '16년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한국 관광 평균 지출액 1,956달러 수준
- **(유통)**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한국 면세점, 백화점 등의 경영실적 악화
 - '17년 2분기 면세점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롯데, 신라가 각각 15.8%, 14.7% 감소하였으며,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 폐점

면세점 매출액 및 영업이익('17.2Q)

(단위 : 억원, %)

구분	롯데	신라	신세계
매출액	11,672	7,910	1,914
(증감률)	(-15.8)	(-14.7)	(4.5)
영업이익	-298	81	-43
(증감률)	-	(-51.8)	(-168.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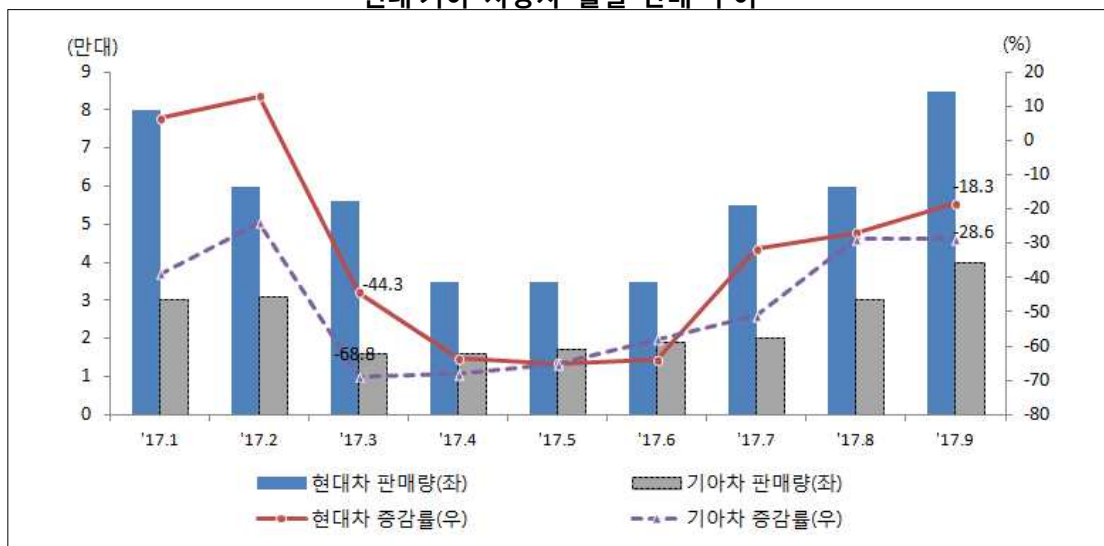
주 : 증감률은 전분기대비
 자료 : 아시아경제('17.9.6), "흔들리는 면세강국"

- 백화점도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음
- * '17년 2분기 롯데백화점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5.6% 감소, 영업이익은 55.6% 감소

- **(문화콘텐츠)** '16.7월 이후 '한류 제한령'*이 지속되어 대중 문화콘텐츠 수출도 위축
 - '17년 상반기 한국의 '음향·영상 및 관련 서비스' 흑자 규모는 1.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.8% 감소
 - * 한류 관련 문화행사 취소, 한중합작영화 제작 중단, 한국 연예인의 중국방송 출연 불허, 한국드라마 방송 심의 지연 중국 업체의 한국 콘텐츠 판권 매입 불허 등

- **(기업)** 현지 진출 업체 중 롯데, 현대, 기아, 오리온 등이 사드 갈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롯데를 제외한 기타 기업들의 실적은 빠른 속도로 회복
 - 9월 중순 롯데마트가 중국내 99개 매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롯데 제과와 롯데칠성 등의 제조공장 매각도 함께 추진
 - * 중국내 99개 롯데마트 매장 중 2월말 이후 영업 정지된 매장 수는 87개, 이로 인한 적자규모는 29억 위안을 초과
 - * 중국 정부는 소방안전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매장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까르푸, 다룬파(大润发) 등 대형 매장과 Tmall, 징둥 등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에 롯데제품 불매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
 - 현대·기아차는 3월 이후 판매량이 급감하였으나 7월 들어 신차 출시, 판매채널 정비 등에 힘입어 판매량이 크게 회복
 - 한국계 자동차 시장점유율 : '17.6월 2.95% → '17.9월 5.34%
 - * 현대차 판매량 : 3월 5.6만대 → 6월 3.5만대 → 9월 8.5만대
 - * 기아차 판매량 : 3월 1.6만대 → 6월 1.9만대 → 9월 4만대

현대·기아 자동차 월별 판매 추이



주 :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
 자료 : 언론보도자료 정리

- 오리온도 사드 여파로 인해 3~4월 중국내 판매량이 급감하였으나 5월 이후 회복세
- LG화학, SK하이닉스 등 중간재 기업 및 SPC 등 식품기업들의 '17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대폭 증가

□ 향후 전망 및 시사점

- **(전망)** 지난 10.31일 한국과 중국 정부가 '한·중간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는데' 합의함에 따라, 사드 갈등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
 - 미국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과 중국이 사드 갈등을 해소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환영입장 표명
 - 사드 갈등이 해소될 경우, 자동차, 호텔·레저, 미디어·광고, 유통산업 등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
- **(시사점)** 다만,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고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자국산업 보호 육성 정책과 상당 부분 맞물려 있었던 점을 감안*하면, 향후 유사 사례 발생에 대비한 Contingency Plan 필요
 - *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 로컬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사드 갈등을 기회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 감지
 - * 중국의 부품소재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'홍색 공급망' 구축 강화로 중국내 외국 부품소재 업체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 상존
 - 유사한 사태에 대비하여 한국 기업들은 중국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, 중국내 경쟁력 저하 업종과 관련 기업들은 동남아 등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검토
 - * 일본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내 경쟁력 저하 산업의 동남아 이전, 중국내 자국 산업의 포트폴리오 재구성 추진
 - 사드 사태와 같은 非경제 요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로컬 업체와의 협력 비중 확대, 중국기업들과의 공동 해외진출 등 중국 기업 및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성을 보다 공고히 하는 전략 필요